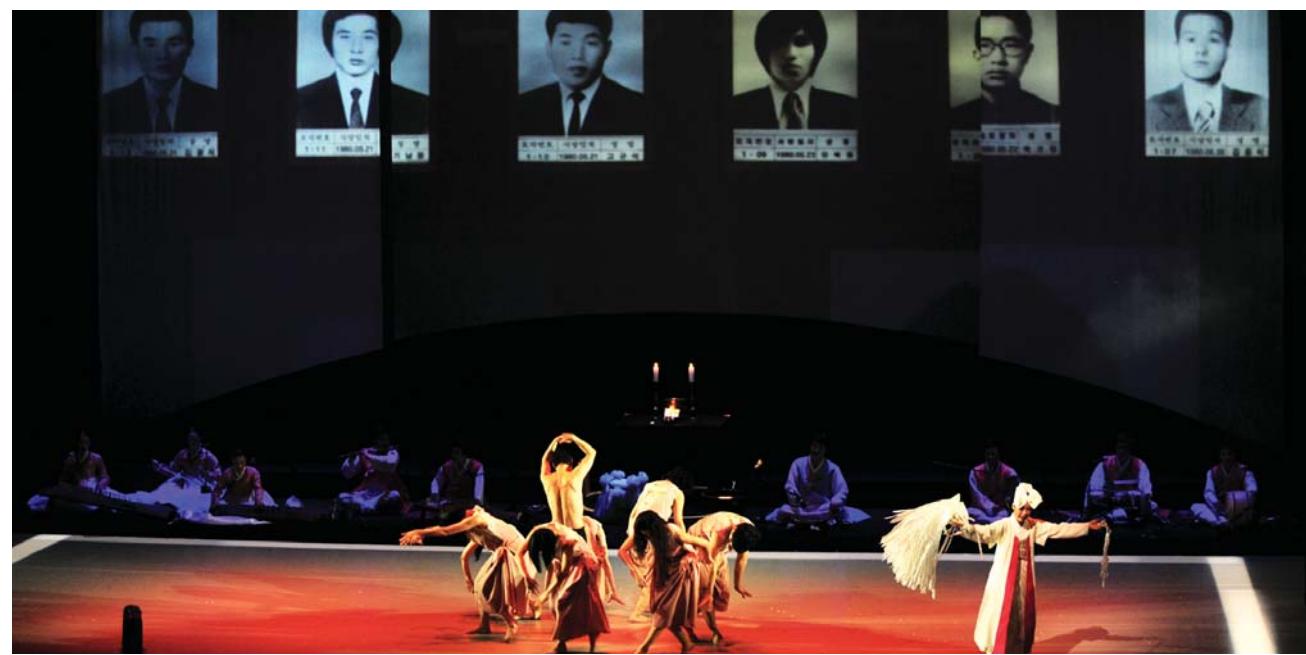


문화

2011 문화계 결산

② 공연



광주브랜드 공연인 '자스민 광주'의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쉬웠던 '오! 페스티벌 광주'

올해 광주 공연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단연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오! 페스티벌 광주'였다. '오! 페스티벌 광주'는 단발적으로 열렸던 정을상 국제음악제,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광주합창페스티벌 등을 통합해 치른 행사다.

이중 가장 아쉬웠던 행사는 '오! 페스티벌 광주-브랜드 공연 축제'였다.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규모가 큰 공연예술 축제였던 광주공연예술제의 맥을 잇는 행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촉박한 제작 기간 등에 헛긴 점은 앞으로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씻김굿 형식의 안일한 구성 역시 다소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아 '자스민 광주'가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는 브랜드 작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

비히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입성, 아름다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으며 시립무용단은 중국에서 '명성황후'를 공연했다.

아름다운 문화나눔의 현장도 많았다.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청소년교향악단과 진행하는 '꿈꾸리 오케스트라', 광주여성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지도를 맡은 문화M오케스트라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화천기공이 서암문화재단을 설립,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을 제정하는 등 지역 전통문화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지역 예술인들의 낭보도 이어졌다. 광주로 알발레단은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티핑 포인트 37.5'로 대통령상을 포함, 남녀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극단 터(대표 정순기)는 전국연극제에서 '막차타고 노을보다'로 금상, 남녀연기상, 희곡상을 받았다.

연극계에서는 28년만에 재창단이 결정된 광주시립극단이 화제였다. 내년 상반기 창단이 확정된 시립극단은 우선 상임 단원 6명 수준으로 출발하며 작품에 따라 연출자와 배우를 모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 평화연극제는 기존의 형태를 과감히 버리고, '5·18'을 단일 주제로 놓고 진행돼 참신한 무대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극단 청춘은 광주세무서 맞은편에 '예술극장'을 오픈했다. 그밖에 광주전남우리가족 부르기,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등 '브랜드'가 된 공연들 역시 활발히 진행됐다.

또 장길법 씨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시리즈는 시립 예술단체를 통해 시민들이 순수예술과 함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스민 광주' 에딘버러 참가, 국내·외 평가 달라

문화회관 20주년 공연... 무용·연극 전국대회 수상

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았지만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작품 수준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페스티벌'이라는 형식이 수의 등에 신경쓰지 않고 문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흔지 않은 기회임에도 국립무용단 등 일부 참가팀의 작품은 너무 식상해 페스티벌의 정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또 광주정을성국제음악제 역시 프로그램 선정과 관객 동원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재단은 빛고을문화관 별관 광주아트스페이스에서 목요상설 공연도 시작했다.

'광주 브랜드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제작된 '자스민 광주'는 지역에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첫번째

그레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딘버러 현지에서는 프린지 공식 평가기관으로부터 별 다섯 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광주문화회관은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시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대형 공연이 없는 점은 기획력 부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알풀은 도시', 시립 무용단의 '성용 이순신' 등 자체 제작 공연과 '내 마음의 풍금' 등 기획공연이 관객들을 만났다.

또 또 장길법 씨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시리즈는 시립 예술단체를 통해 시민들이 순수예술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글로벌 우수브랜드 우리생선 名家 청어당 안동간고등어가 호남총판의 문을 활짝 엽니다!



대를 이어오는 우리 맛 지킴이 안동간고등어가 12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SMEWG-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orking Group) 총회에서 '지역 브랜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생선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고객 여러분의 청찬과 격려로 이루어진 영광임을 잘 알기에 이제 고객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12월 23일, 호남총판(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안동간고등어는 영광굴비와 더불어, 잇따른 FTA 협정 체결과 외국산 수입생선의 국내 유입으로 힘든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우리 바다의 국내산 고등어만을 고집합니다.

"우리생선 名家" 청어당(淸魚堂) 안동간고등어가 우리생선, 우리 어민들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제맛이 아니면 내놓지 않는 청어당 안동간고등어로 따뜻한 정을 들풀 나누세요.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 대표 안봉한 올립

※ 무료시식권을 소지하시고, 미리 예약하시면 순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 오픈기념 무료시식회
일시 - 2011년 12월 23일 11:30~14:00
장소 - 홍백식당(대인동 예술의거리 입구 맞은편)



우리 바다 · 우리 어민 · 우리 생선을 지킵시다



호남총판 (주)헤브론 국제무역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54-1 성화BD 3F Tel. 1577-4929 Fax. (062)233-7888 www.whitestonemall.com

도자기가 빛을 만나 예술이 되다

김진석 개인전, 22~31일 나인갤러리

굳이, 밟더 밴야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는 수 많은 이미지로 둘러싸여있다. 디지털의 발달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미지가 생산되고 사라지고 있다. 김진석은 이런 이미지의 과잉에 집중하고 있는 작가다.

도예작가 김진석씨가 22~31일 광주 나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도자기로 만든 전등 연작을 선보인다. 그는 수 천장의 사진 이미지를 겹치고, 다시 잘라내는 작업을 반복한 뒤 이를 통해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류'

메리 크리스마스~ 올핸 국악과 함께해요

퓨전그룹 '아이리아' 송년콘서트,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아(총감독 김혜경)가 겨울 송년콘서트 '얼씨구, 메리크리스마스 겨울에 듣는 영화음악 '겨울연가'를 펼친다.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문화재단의 '목요상설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의 주연 레퍼토리는 영화 '노팅힐'의 주제곡 'She', 영화 '리브레터'의 주제곡 'A winter Story',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제곡 '눈의 꽃' 등으로 구성된다. '루돌프 사슴코' '북치

는 소년', '징글벨' 등 캐롤 모음곡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리브 액츄얼리'의 삽입곡 'Love is all around',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뮤지컬 사카모토의 피아노곡 'Merry Christmas Mr. Lowrance' 등도 연주한다.

가야금 박민경, 이상미, 임재원, 대금에 심인지, 해금 이유리, 신디사이저 박초희, 드럼 신보영, 베이스기타 강동진씨와 아이리아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국악 동아리 '무지개 가야금 교실' 아이들이 특별 출연한다. 선착순 전화예약. 문의 062-670-79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짓날 즐기는 민속놀이

담양 대답미술관

"동짓날 시골 미술관에서 흥겨운 우리 문화를 즐겨보세요"

담양 대답미술관은 오는 22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향교리 예술인 마을되다'의 오픈 행사로 '동지죽 파티'를 연다. 마을 주민과 동지죽을 나눠먹으며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이주여성들의 민속 공연도 열려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지죽의 새알 빙기 ▲필리핀 민속춤 공연 ▲베트남 민속춤 공연 ▲중국 민속춤 공연 ▲다문화 가정의 시조 낭송 ▲마을주민들의 노래 잔치 등 풍성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지역주민과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팔죽과 과일, 죽순빵, 차 등 다양한 음식도 마련됐다. 문의 061-381-008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터 설립 이래 12년만의 처음으로 선보이는 센터 직원들의 문화 공연도 겸들여진다. 참석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나 와인 등을 가지고 오는 포트락 파티(Potluck Party)로 진행되며, 한국 음식과 외국인들이 마련한 이색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벼룩 시장도 펼쳐진다. 원피스, 퍼프스, 바지, 청바지, 치마, 티셔츠, 책,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센터 후원금으로 쓰인다.

이 밖에 '산타클로스와 프리 허고' '쓰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소원나무' '나도 한마디 메세지 월' '내 얼굴이 센터 벽에-포토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의 062-226-27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